

이스란 제1차관, 장애인 의료 현장 방문 및 장애인 건강권 위한 의료계 의견수렴

- 장애인 접근성 개선한 장애친화 의료기관 현장 방문 -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전문가 의견 청취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12일(수) 오후 4시 이대목동병원(서울 양천구 소재)을 방문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방문한 이대목동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22.11월)’ 및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25.7월)’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환자를 위한 전담 관리자·수어통역사 배치, 진료 동행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에 앞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친화 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재활의학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등 참석 전문가들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활성화,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의료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임현규 (044-202-3190)
	장애인건강과	담당자	사무관	김소민 (044-202-3188)

□ 개요

- (목적) 장애친화 의료기관 현장 의견 청취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전문가 의견수렴
- (일시·장소) 11월 12일 16:00~17:30 / 이대목동병원*
 - *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기관
- (참석자) (정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전문가) 장애친화 의료기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대한재활의학회,
 (유관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재활원, 장애인개발원

□ 세부일정

시 간	소요(분)	주요 내용	비고
16:00~16:30	'30	기관 소개 및 라운딩	의료기관 관계자
16:30~17:30	'60	간담회	참석자